

‘아리랑’ 기원과 현대적 호명(呼名)의 의미



PROFILE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현)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 분야 전문위원(현)



민족의 노래 아리랑

한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를 꼽으라면 어떤 노래를 꼽을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먼저 꼽을 것이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기 때문이다. <아리랑> 만큼 남북과 해외 한민족에게 알려지고 불려지는 노래는 없을 것이다. <아리랑>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다.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곡조가 붙으며, 장단과 사설도 다양하게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음색으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아리랑'이 여음구나 아리랑이라는 말이 붙은 민요가 남북, 해외 어디에나 한민족이 있는 곳이면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었다.

<아리랑>은 남과 북을 포함하여 한민족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불리는 민족의 노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리랑>의 기원이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불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북한에서도 <아리랑>은 우리 나라 민요들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노래, 우리 인민들이 가장 사랑하며 즐겨 불러 온 민요'라는데 의견을 달리 하지 않는다. '아리랑'의 종류에 대해서도 <본조아리랑>, <신조아리랑(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해주아리랑>, <서도아리랑> 등으로 다양하다. '열두아리랑'에 '열두고개'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갈래로 전해오고 있다고 본다. <아리랑>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은 <아리랑>이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장단과 사설의 <아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대와 지역의 정서가 담긴 다양한 <아리랑>이 만들어졌고,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오죽했으면 '어월백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



2005년 아리랑을 주제로 한 북한의 공연

장도 다양하다. 북한에서는 민요 <아리랑>이 순 우리말로 불려진 노래라는 점을 근거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불려 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요 <아리랑>의 가사가 순수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순 우리말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한문이 사용되기 이전 시기, 즉 삼국시기 이전의 노래'라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려 후기로 보기도 한다. 고려 후반기에는 '긴 조흥구로 이루어진 후렴의 반복부가 순수한 우리 말로 된 절가형식의 가요 창작이 성행'하였던 시기이다. 이른바 고려 가요가 왕성하게 창작되었던 시기이다. <청산별곡>, <가시리>와 같은 고려가요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다. <아리랑> 역시 고려가요와 한가지로 후렴구가 반복된

다. 이런 점을 근거로 고려후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느 견해를 따르던 '아리랑'의 기원을 상당히 올려 잡고 있는 셈이다.

아리랑의 기원 설화, 〈성부와 리랑〉의 전설

남북과 해외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리랑'은 이별과 슬픔을 정서로 한다. 이별과 슬픔을 담게 된 〈아리랑〉의 기원은 무엇일까. 민요 아리랑이 다양한 곡조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아리랑'의 기원 역시 '아리랑설(我離郎說)', '아이농설(我耳聾說)', '아랑전설(阿娘傳說)' 등으로 다양하다. 북한에서도 '아리랑'의 기원이 다양하다고

본다. 여러 전설 가운데서도 유력한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부와 리랑'의 전설이다. '성부와 리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전설이다. '성부와 리랑'의 전설은 2001년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출판한 박종철의 소설 〈아리랑〉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종철의 소설 〈아리랑〉은 북한에서 '아리랑'의 대표적인 근원전설로 소개하는 '성부와 리랑'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조 중엽, 어느 산골 한 마을에 김좌수라 마음씨 나쁜 지주가 살고 있었다. 김좌수의 집에는 '리랑'이라고 하는 총각과 '성부'라고 하는 처녀가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전에 없었던 흑심한 가뭄이 들었다. 흑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은 가을부터 먹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주



1926년 춘사 나운규의 아리랑 기록사진(사진제공:뉴시스)

는 농민들과 소작인들을 못살게 굴면서, 얼마 안 되는 종곡마저 모조리 빼앗아 갔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켰다. 김좌수 집에서 머슴을 살던 리랑과 성부도 농민 폭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주는 자기 옷을 버리고 머슴의 옷을 갈아입고는 집을 빠져 나왔다. 지부는 곧장 관청을 찾아가 원에게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렸다. 얼마후 관군이 출동하여 폭동을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리랑과 성부는 다행히도 관군의 추격에서 몸을 피하여 '수락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농민의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도 지주의 만행은 계속되었다. 지주의 만행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고을 여러 곳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리랑'은 억울하게 죽은 마을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면서 다시 싸움터로 나섰다.



2014년 9월 20일 오후 인천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안게임 여자 축구 C조 예선 북한과 홍콩의 경기에서 (아리랑 통일 응원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때 성부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을 슬피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리랑의 정서와 내용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의 이야기를 붙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성부와 리랑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아리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민요 〈아리랑〉에는 ‘인민들이 당하던 쓰라린 고통과 설음, 통치배에 대한 원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이 담긴 작품’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부와 리랑의 설화에 더욱 주목한다. 성부와 리랑의 전설에는 ‘아리랑’의 정서라고 주장하는 민중의 불우한 정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민요 ‘아리랑’의 정서에 대해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의 수난사가 그대로 비껴있기 때문에 ‘우리 인민이 지난 날 자신들의 불우한 운명을 개탄하며 슬픔에 잠겨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의 운명이 구원될 내일을 갈망하여 애절하게 부르기도 하면서,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난과 애환의 아리랑이 방방곡곡으로, 또 민족을 따라 세계로 흩어지면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설들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내용의 〈아리랑〉으로 개작되는 과정을 통해 〈아리랑〉의 정서가 공유하는 다양한 아리랑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성부흥으로 호명(呼名)되는 아리랑

〈아리랑〉이 일반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영화 〈아리랑〉이었다. 1926년 춘사 나운규가 각본·감독·주연·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면서였다.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10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1,000만 관객을 넘어선다고 할 정도의 인기였다. 영화 〈아리랑〉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동생을 겁탈하려던 일본군사를 죽이고 끌려가는 장면에서 주제곡인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당연하게 영화 주제가었던 ‘아리랑’도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민족의 수난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02년이었다. 2002년 북한에서는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이라는 긴 명칭이 붙은 〈아리랑〉이 공연되었다. 1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출연하여, 집단체조, 예술공연, 그리고 카드섹션으로 불리는 배경대 미술, 레이저 조명 등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당시 북한은 ‘이 작품은 조선의 유명한 민요 〈아리랑〉을 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아리랑〉이 민요 〈아리랑〉을 기본 모티프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2012년의 북한의 아리랑 공연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아리랑〉의 핵심은 ‘민족’이다. 2002년 〈아리랑〉 공연에 대해 북한은 ‘지금 창작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이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민족의 운명사와 세태풍속을 서사시적 화폭 속에 황홀하게 펼쳐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수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아리랑 민족’이 부르던 슬픔의 〈아리랑〉을 ‘새로운 시대, 강성대국의 시대’에 맞는 ‘희망의 아리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아리랑〉 공연은 전반부 아리랑 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수난’을 상징하고, 이후에는 ‘아리랑 민족으로서 통일과 강성부흥에 대한 희망과 전망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리랑〉이 보여주는 ‘통일과 강성부흥의 희망’은 최고 지도자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명확하다. 민족적 정서와 문화에 기대어, 북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아리랑이 호명된 것이다. 을 갈망하여 애절하게 부르기도 하면서,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난과 애환의 아리랑이 방방곡곡으로, 또 민족을 따라 세계로 흩어지면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설들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내용의 〈아리랑〉으로 개작되는 과정을 통해 〈아리랑〉의 정서가 공유하는 다양한 아리랑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우리민족교류협회는
 분단을 넘어 대륙으로
 한민족의 역량을 펼쳐갑니다.



대표상임고문 김삼환 한국교회봉사단 회장 명성교회 담임목사
 상임고문 박홍진 시강대학교 총장 가톨릭교수회 지도신부
 상임고문 손병두 전, KBS 이사장 호암재단 이사장
 상임고문 송철주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상임고문 엄신형 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상임고문 이어령 초대문화부장관 중앙일보 고문
 상임고문 이학선 월드컵스코리아 총재 고려대학교교우회 상임이사
 상임고문 한양원 한국민족총교협의회장 제레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



명예총재 강영훈 전, 국무총리
 명예총재 권영혜 전, 국방부 장관
 총재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회장 이강두 전, 국회의원
 상임대표회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공동회장 김성영 국가인권위원
 공동회장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회장 서대천 통일로가능길 CEO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311호)
 Tel (02)3676-2007 Fax (02)3672-1907
 www.korinf.com